

풍류황제 송 휘종은 어디에 묻혀있는가?

김 관 응*

┃ 차 례 ┃

1.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亡國之君 宋徽宗
2. 徽宗·欽宗의 北遷行跡 및 이들의 流配詩詞
3. 五里霧中에 빠진 徽宗·欽宗의 葬地
4. 徽宗·欽宗의 무덤에 관한 조선조 문헌자료들에서의 기록
5. 徽宗·欽宗의 무덤에 관한 중국 문헌자료들에서의 기록
6. 마무리는 말

국문초록

『송사』·『금사』 등 중국 정사의 기록에 의하면 ‘정강지변’ 이후 북송의 휘종과 흠종 이 두 부자 황제는 금나라에 의해 중국 동북지역의 오국성에 포로로 끌려와서 감금되었다고 한다. 1135년 휘종은 54세를 일기로 오국성에서 죽은 뒤 금나라 회종은 송 휘종을 지금의 중국 하남성 낙양시 부근에 매장했다고 한다. 1142년, 송과 금의 협의에 좇아 휘종의 유골은 입안으로 반환되었고 송 고종은 그 유골을 소흥근교의 영우릉에 매장했다고 한다. 흠종은 1156년 연경에서 57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는데, 금나라에서는 그의 시신을 지금의 하남성 공현에 매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천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오국성과 휘종·흠종의 매장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여 통일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이는 천고의 미스터리로 되었다.

본 논문은 문헌고증학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주로 조선 및 중국의 역사 문헌들을 통하여 오국성의 지리적 위치와 휘종·흠종의 매장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고증을 진행함으로써 초보적으로 오국성은 지금 조선 함경북

*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도 회령의 운두산성이고, 휘종·흠종의 매장지는 지금의 조선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휘종, 흠종, 오국성, 매장지, 문헌고증

1.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亡國之君 宋徽宗

중국고대예술사에 대해 조금만 상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 북송의 휘종 황제가 그린 「청금도(聽琴圖)」·「문화도(文會圖)」나 그가 수금체(瘦金體)로 쓴 「서목단시(書牧丹詩)」를 알고 있을 것이다. 송 휘종은 치국에는 낙제생이었지만 회화나 서예에는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는 우등생이었다. 휘종은 중국고대 정치사에서는 망국지군(亡國之君)이라는 오명(汚名)을 갖고 있지만, 중국고대 예술사에 걸출한 화가·서예가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송 휘종 趙佶(재위, 1100~1125)은 宋 神宗 元豐 5년(1082년)에 태어났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宋 神宗(재위, 1068~1085)이 하루는 南唐後主 李煜의 초상화를 보면서 이 亡國之君의 재능을 크게 찬양하였는데,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일의 휘종 조길(趙佶)이 태어났다고 한다. 조길이 태어날 때 그의 부친 宋神宗은 송태조에 의해 목숨을 잃은 李煜이 찾아와서 자기를 배알하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李煜은 바로 趙佶의 몸을 빌려서 전생했으며 또한 바로 이런 까닭에 趙佶은 宋太祖 趙匡胤(재위, 960~976)이 개척해 놓은 북송의 강산을 말아먹었는데 이는 李煜을 위해 망국의 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¹⁾ 그러나 방금 고고성을 올리면서 태어난 趙佶에게는 나라를 말아먹을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을 리 없었다. 왜냐하면 송신종의 열한 번째 아들인 조길은 황제의 寶位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조길은 스스로도 정치상에서 자기는 이름을 날릴 가망이 없다고 여기고

1) 彭勇 主編, 2006, 『天朝落日－中國二十王朝覆亡全景』, 東方出版社, 218~219쪽 참조.

있을 무렵에는 자기의 천부적인 예술적 재질과 예술에 대한 취미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정력을 자기가 사랑하는 예술에 쏟았다. 만일 그 후의 동아시아 정치풍운의 조화만 없었더라면 조길은 중국예술사에서 가능하게 ‘위대하다’는 낱말을 동원하여 형용해야 하는 예술가로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적어도 중국서예사와 중국회화사에서만은 의심할 나위가 없이 숭고한 지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지금도 그가 개척한 “瘦金體” 글씨체나 「秋景山水圖」, 「聽琴圖」같은 意境이 深遠한 繪畫작품과 함께 중국미술의 공로자, 특히 회화의 황금시대를 구축한 중심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바로 趙佶이 자기는 위대한 예술가로서 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하늘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기회를 내려주었다. 1100년, 趙佶이 23세 되던 해에 방탕한 궁중생활에서 체력을 탕진한 그의 형 宋哲宗 趙曠(재위, 1068~1085)은 지기의 뒤를 이을 자식도 없고 또 遺囑도 남기지 않은 채 崩御했다. 당시 황위 계승자를 고를 때 재상 章惇을 비롯한 적잖은 朝廷重臣들이 “趙佶은 행위가 경박하여 천하에 군림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지만 태후는 趙佶이 仁孝端正하고 福壽之相을 갖고 있다고 여기면서 기어코 趙佶을 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이 “행위가 경박한” 趙佶이 휘종으로 되었다. 그 뒤의 역사는 재상 章惇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음을 증명해주었다.

일반적으로 예술가(그의 예술적 성취는 결코 일반적인 미술애호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들은 흔히 풍류와 낭만적 기질을 갖고 있으며 흔히 전통적인 가치 관념이나 세속적인 행위규범들을 멸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네들은 자기의 기호나 감정에 좇아 처신한다. 질은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있었던 휘종도 예외일수 없었다. 정감적인 성향이 강한 예술가에게 남들이 제약할 수 없는 권력까지 부여되었을 경우에 십중팔구는 비극으로 종말을 짓게 되는 법이다. 비록 “極盛”시기에 처해 있었던 북송 왕조는 百弊가 叢生하고는 있었지만 필경은 자기의 수명을 어느 정도 유지 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면이 急轉直下하여 북송이 신속하게 멸망하게 된 데는 제왕과 예술가

라는 이 사이의 사회적인 배역사이의 錯位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망국지군 휘종은 죽은 뒤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인물로 되어왔는바 특히 중국의 소설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역사인물로 되어 왔다. 이를테면 휘종의 이름은 동양 각국 민중들에게서 사랑을 받아온 소설 『水滸傳』이나 중국의 한족 독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岳飛全傳』 등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그 자신의 만년의 비극적 삶으로 하여 더욱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 존재이다. 25년에 이르는 그의 治世는 100만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6만 명밖에 안 되는 女眞 鐵騎들의 질풍노도 같은 공격에 의해 맥없이 무너졌다. 1127년, 徽宗 그리고 그를 이어 등극한지 1년밖에 안 되는 아들 - 북송 9대 황제 欽宗은 3,000명에 달하는 皇室 성원들과 朝廷 重臣들, 그리고 막대한 財寶와 함께 삭풍이 몰아치는 동북쪽으로 끌려갔다.²⁾ 萬乘之君으로부터 포로의 몸이 되어 오랜 세월을 고통스럽게 지내면서,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쓸쓸하게 어느 곳에선가 생을 마쳤다.

휘종과 흠종이 대관절 어디에 유폐됐다가 어디에서 생을 마감하고 땅속에 묻혔을까? 사람들은 천년 가까이 오도록 아직도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수 백 년 동안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2. 徽宗·欽宗의 北遷行踪과 이들의 流配詩詞

欽宗靖康二年(1127년)에 일어난 靖康之變은 중국 역사에의 엄청난 대사변이었다. 이 대사변에서 북송왕조의 徽宗, 欽宗 이 두 부자 황제는 汴京에서 금나라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 황후·황태자·비빈, 황실의 귀족, 조정

2) 宇文懋昭, 『大金國志』 卷32, “金國檢視大宋庫藏”, “金國取去大宋寶印”, “宗族隨二帝北遷”을 참조하라.

의 고관대작 등 3천여 명의 포로들과 함께 변경에서부터 鄭州로 옮겨졌다가 鄭州로부터 北遷의 험난한 長途에 올랐다. 흠종은 靑氈笠을 쓰고 말을 타고 잡혀가면서 매 하나의 성곽을 지날 때마다 두 손으로 얼굴을 막으면서 통곡하곤 하였다고 한다.³⁾ 이로부터 우리는 휘종과 송흠종을 비롯한 3천여 명 송나라 포로들의 북천은 정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이들은 燕京과 中京을 거쳐 그 이듬해인 金天會八年(1128년) 봄에 금나라 도읍 上京會寧府에 도착했다고 한다. 上京에서 金太宗 完顏晟(재위, 1123~1135)은 宋徽宗에게 昏德公, 宋欽宗에게 重昏公이라는 모욕적인 뜻이 다분한 관작에 봉했다고 한다. 미구하여 金太宗은 徽宗, 欽宗을 韓州에 보내어 감금시켰고, 바로 이 해에 五國城에 옮겨졌다고 한다. 휘종과 송흠종의 마지막 정착지는 五國城이고 하는 점만은 의심할 바 없다.

『大金國志』은 휘종과 송흠종의 북천행적에 대해 보다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宋建炎元年, 1127年)七月, 宋二帝自雲中如燕山府。”⁴⁾

“(宋建炎元年, 1127年)八月, 宋二帝自(中)〔上〕京如韓州。”⁵⁾

“(天會八年, 1130年)七月, 宋二帝自韓州如五國城。五國城者, 在金國所都西樓之東北千里, 金人將劉豫, 乃請二帝徙居之。”⁶⁾

<汴京 → 鄭州 → 燕京 → 中京 → 上京 → 韓州 → 五國城>이라는 이 휘종과 흠종의 북천노선을 중국의 사학계에서는 공인하는 바이다.

포로로 잡혀서 북녘 땅으로 끌려가던 도중에 휘종과 흠종이 지었다는 시는 참으로 음미할 만하다.

玉京曾憶昔繁華, 옥 같은 서울 그 옛날 번창함을 돌이켜보니

3) 『續資治通鑑』 第97卷, “宋欽宗靖康二年, 四月 庚申朔을 참조하라.

4) 宇文懋昭 撰, 『大金國志』 卷5, 紀年五, “太宗文烈皇帝三”, 天會五年.

5) 宇文懋昭 撰, 『大金國志』 卷5, 紀年五, “太宗文烈皇帝三”, 天會六年.

6) 宇文懋昭 撰, 『大金國志』 卷6, 紀年六, “太宗文烈皇帝四”, 天會八年.

萬里帝王家。	만리의 제왕가였네.
瓊林玉殿，	찬란한 구중궁궐에서는
朝喧弦管，	아침마다 관현소리 들려오고
暮列笙瑟。	저녁마다 생황, 비파소리 들려왔네.
花城人去今蕭索，	꽃 같은 성안에 사람들이 떠나 소슬하고
春夢繞胡沙。	춘몽은 되 땅의 황사만 감도네.
家山何處，	가산은 어디에 있는가?
忍聽羌笛，	지겹게 들려오는 오랑캐의 피리소리에
吹徹梅花。 ⁷⁾	매화만 속절없이 피고 지네.

— 趙佶 「眼兒媚」全文

휘종이 그린 북송의 도읍 동경(東京)의 번창하고 화려함은 송나라의 대화가 장택단(張擇端)이 그린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를 보거나 북송시기를 살았던 유로(遺老) 맹원로(孟元老)가 지은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을 보면 연상할 수 있다. 父皇 徽宗의 이 詞에 아들 欽宗은 더욱 비감하여 다음과 같은 시로 화답을 했다고 한다.

宸傳三百舊京華，	왕업이 3백년 전해온 도읍이었고
仁孝自名家。	仁孝가 넘친 명문대가였소이다.
一旦奸邪，	一朝에 간사한 무리 일어나
傾天折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번져졌는데
忍聽琵琶?	비파소리를 듣고 계시다니요?
如今在外多蕭瑟，	눈앞의 이역 땅 쓸쓸하기 그지없고
池邈近胡沙。	오랑캐 땅의 황사만 감도는구만요
家邦萬里，	집과 고국은 만 리나 떨어져
伶仃父子，	의지가 없는 두 부자는
向曉霜花。	새벽 서리 맞은 꽃 같은 신세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至高無上한 황제로부터 일조에 모든 것을

7) 李長路·賀乃賢·張巨才, 1994, 『全宋詞選釋』, 北京出版社, 220~221쪽.

박탈당한 徽宗과 欽宗 이 두 부자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란 바로 생명 대 생명의 가장 직접적이고 진솔한 교류였다. 이 부자가 서로 주고받은 사에서 우리는 화려했던 제왕시절에 대한 미련과 회억 그리고 망국의 고통, 회한과 절망 등 착잡하기 그지없는 진솔한 인간의 내심세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부왕인 徽宗보다 아들인 欽宗은 더욱 절망적인 정서를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송제국(大宋帝國)의 강산과 사직은 이미 휘종이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엉망이 되었고 欽宗은 이 엉망이 된 나라를 徽宗으로부터 이어받아가며 1년도 안 되어 이런 포로 신세로 되어 유배지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으니 부황(父皇)에 대해 어찌 원망이 없었으랴.

이 점은 당시 부황(父皇)의 감수를 어처구니없다고 하면서 “일조에 간사한 무리가 일어나 /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번져졌는데 / 비파소리 듣고 계시다니요?”라고 꾸중을 가깝게 편찬하는데서 보여 진다. 이미 다 썩어진 죽이 밥이 될 리 없듯이 흙종이 부황을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감에 빠졌던 흙종은 북녘 땅에서 반세기 이상이나 귀양살이를 했다. 이 긴긴 반세기를 欽宗은 대관절 어떻게, 무엇으로 버텨왔을까? 그것이 무척이나 궁금하다.

“이긴 자는 왕이요, 진 자는 역적”이라는 것은 무정한 정치의 논리를 우리는 북송의 두 황제 휘종과 흙종의 말로에서 재차 확인하게 된다.

徹夜西風撼破扉, 밤새껏 삭풍이 창문을 두드리고
蕭條孤館一燈微. 쓸쓸한 방안엔 등잔물이 희미하네.
家山回首三千里, 돌아보니 가산은 3천리 밖
目斷天南無雁飛.⁸⁾ 남쪽 하늘 바라봐도 기러기떼 보이지 않네.

- 趙佶「在北題壁」全文

휘종을 따라서 오국산성에 갔던 蔡肇⁹⁾의 《北狩行錄》의 기록에 의하면

8) 李興盛 著, 1991, 『東北流人史』, 黑龍江人民出版社. 26쪽에서 재인용.

9) 蔡肇는 蔡京의 아들로서 宋宣和元년에 휘종의 딸 福金(茂德公主)과 결혼하여 휘종의 駙馬

이 「在北題壁」는 바로 휘종이 五國城에서 쓴 것이라고 한다. 오국성의 방안에 앉아서 고국을 그리는 포로의 심정을 절실하게 표현했다.

상기 휘종의 流配詞는 近人 曹元忠이 輯錄한 것으로서 책이름을 『宋徽宗詞』라고 달았으며 『全宋詞』에는 宋徽宗의 12수의 詞가 수록되어 있다.

宋徽宗은 원래 詩詞에 能通한 사람이라 북천도종과 오국산성에 유배되어 포로의 삶을 살았던 시기에 천여 수의 시를 서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현했다고 했다. 그런데 天會十年(1132년) 徽宗의 열다섯 번째 아들 조악과 駙馬 劉文彥이 휘종 좌우의 친신들과 信王 趙榛(휘종의 열여덟 번째 아들)이 모반을 했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徽宗의 많은 詩詞들도 이때에 대부분 색출되어 불태워져서 후세에 전하여 저 내려오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¹⁰⁾

3. 五里霧中에 빠진 徽宗·欽宗의 葬地

이상의 문헌기록으로 보아 휘종과 송흠종의 마지막 정착지는 五國城이라는 점만은 의심할 바 없다. 다만 이 五國城이 대관절 어느 곳에 있는가에 대해서만은 수백 년 동안 많은 부동한 주장이 엇갈렸다.

『欽丁滿洲源流考』는 어명에 좇아 阿桂가 편찬하여 淸乾隆 42년에 출간한 史書이다. 이 책의 “권11, 疆域 19, 五國部”에서는 北宋의 徽宗, 欽宗이 幽閉되었다가 죽은 고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추측들을 열거하고 있다.

예로부터 휘종이 이 고장에 묻혔다고 전해온다(오국성이라는 설은 일정치가 않다. 혹자는 녕고담 동쪽 송화강과 흑룡강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토

都尉로 됨. 靖康之變 이후 휘종과 함께 포로되어 북천 길에 올라서 오국산성에 도착한 후에 지성껏 휘종을 돌보았다고 한다. 그가 지은 『北狩行錄』은 『續修四庫全書』 史部雜文에 수록되어 있는데, 휘종의 8년 동안의 포로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10) 위의 책, 28~30쪽 참조.

성을 (오국성)이라고 하고 혹자는 조선 북쪽 변경에 있는데 이 고장은 영고탑과 가깝고 오랜 고성인 산우에 있는데 이를 (오국성)이라고 하고, 혹자는 연경에서 3,800리 서쪽으로 가서 황룡부에 이른 후 다시 그곳에서 2천 100리를 더 가는 고장에 있다고 하고, 혹은 녕고탑과 그 가운데 창두가에 오랜 성곽 유적지가 다섯이 있는데 이곳이 (오국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기도 한다. 『금태종본기』에 의하면 ‘천희 6년에 혼덕공과 중훈후를 한주에 이송했다가 천희 8년에 다시 후이하로에 옮겼다고 하는데, 기실은 영고탑이다’라고 한다. 『송사』에 의하면 한주에 있는 오국성이라고 했는데, 한주와 오국성을 한 고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틀렸다. 여러 책들에서는 모두 너무 소략하게 기록했으며 실제 증거가 없다. 오늘의 삼성 지방에 오국성 유적지가 있다고 전해내려 온다.¹¹⁾

『欽丁滿洲源流考』는 휘종이 유폐되었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라고 기록을 남긴 “여러 책들에서는 모두 너무 소략하게 기록했으며 실제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지금 중국의 史學界에는 “녕고탑 동쪽 송화강과 흑룡강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토성을 五國城이라고 한다”는 『欽丁滿洲源流考』 중의 이 假定에만 의존하여 대부분 北宋의 徽宗·欽宗은 지금의 黑龍江省 依蘭縣에 있는 五國山城에 잡혀갔다가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국성에서 아직까지도 北宋의 徽宗·欽宗의 무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근년에 중국의 한 문학사 저서에서는 휘종 조길이가 오국성에서 “좌정관천(坐井觀天)”을 했다는 전설을 언급하면서 일부러 “의란현에 오랜 우물 세 개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조씨 부자 황제가 확실히 흑룡강성 의란현의 우물 속에 갇혀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이 세 오랜 우물이 바로 이 두 황제가 갇혔던 우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18세기 초, 두만강 朝淸國界를 답사하던 도중에 조선 함경도 회령에 들

11) 『欽丁滿洲源流考』 권11, 疆域 19, 五國部. “舊傳, 宋徽宗葬於此(按: 五國城之說不一; 或謂寧古塔東, 松花江·黑龍江合流之處, 有土城焉; 或以爲在朝鮮北境, 近寧古塔, 有故城在山上; 或以爲去燕京三千八百里, 西至黃龍府二千一百里; 或謂寧古塔相近槍頭街, 有舊城址五, 疑卽是也. 據『金太宗本紀』云, ‘天會六年, 徙昏德公·重昏侯於韓州, 八年, 再徙呼爾哈路則實在寧古塔也.’ 『宋史』稱, 韓州五國城, 誤合爲一地第. 諸書皆約略之辭, 未有實據. 今三姓地方, 相傳有五國城遺址”

려서 “宋帝之墓”를 보았다는 淸朝의 우라총관 穆克登의 말을 듣고 그랬는지 『欽丁滿洲源流考』에서도 “혹자는 조선 북쪽 변경에 있는데 이 고장은 녕고탑과 가깝고 오랜 고성(古城)이 산(山)우에 있는데 이를 (오국성)이라고 한다”고 여러 가지 추측 중의 하나로 열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또 일부 사람들은 오국성이 길림성 경내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²⁾

아무튼 휘종, 송흠종이 갇혀 있다가 죽었다는 오국성을 두고 중국에는 오랫동안 제설이 분분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 종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4. 徽宗·欽宗의 무덤에 관한 조선조 문헌자료들에서의 기록

흥미로운 것은 조선조 시기의 문헌자료들에 徽宗·欽宗의 무덤에 관한 기록들이 적잖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1) 조선조 전기 金誠一의 『鶴峰續集』·『鶴峰逸稿』 중의 유관 기록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은 1579년(선조 12) 11월 29일, 「눈 온 뒤 운두성에 올라(雪後登雲頭城三十韻)」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북쪽으로 천개 산이 안겨져 있고	直北千山擁
구름속에 만 성첩이 둘러져 있네	凌雲萬堞環
귀신의 힘을 빌려 쌓은 것인가	經營煩鬼力
신이 숨겨둔 곳을 파헤쳤구나	開闢破神慳
.....	
오랑캐 마음 맹수보다 더욱 사납고	戎心劇狼虎
의복에는 표범 무늬 뒤섞여 있네	衣服雜彪彪

12) 胡云翼 編, 1987, 『宋詞選』, 上海古籍出版社, 215쪽.

오랑캐의 소굴 된 것 어느 때인가	窟穴從何代
비린 냄새 사방에 넘쳐 흘렀네	腥膻漲四竇
백년 오랑캐 운수 다하여	百年胡運歇
천년의 태평시대 돌아온다면	千載泰期還
멀리까지 중국 땅을 개척하고서	開拓堯封遠
잔악해진 오랑캐 종자 죽어 없애리	誅鋤虜種孱

김성일은 운두산성이 “오랑캐의 소굴 된 것 어느 때인가?”고 물었는데, 사실 운두산성이 있는 지금의 회령지방이 “오랑캐의 소굴”이 된 것은 10세기 중엽 이후 함보가 이 고장에서 완안부여진부락을 일으켰던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금나라의 시조 함보(函普)가 고려를 떠나서 정착했다는 복알수(僕斡水, 혹은 布爾噶水) 유역은 완안부(完顏部) 여진부락은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 혹은 연변의 부르하통하(布爾哈通河) 유역이었다.¹³⁾ 후금(淸)의 조조(肇祖)인 동명거터물(童猛哥帖木兒, ?~1433)이 이끌었던 오도리부락과 그 후의 건주여진의 발상지 역시 지금의 회령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유역이었으며, 동명거터물은 회령 풍산면에 묻혀있다. 김종서가 두만강 유역에 6진을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회령을 중심으로 하는 두만강 유역은 여진인들의 중요한 활동공간이었다.

조선인들은 아주 일찍부터 조선함경북도 두만강기슭에 있는 운두성을 오국성이라고 일컬었다. 오국성이라고 불리는 운두성은 회령북쪽 25리, 두만강 남쪽에 있는 험준한 산성으로서 주변에 여진부락들이 널려 있는 곳이다. 김성일은 1579년 9월 함흥(咸興)과 길주(吉州) 등지의 번고(反庫)업무를 담당하라는 왕명을 받고 함경도에 왔다가 운두성에 올라가 이 시를 지었다.¹⁴⁾ 이 운두성안에는 宋의 徽宗과 欽宗의 陵이라고 전해지는 두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김성일은 금나라 여진족 “오랑캐”한테 붙잡혀 와 이역에서 생애를 마친 두 황제를 추도하여 이 시를 쓴 것이다. “오랑캐의 마음이 맹수보다 더

13) 김관용, 「두만강유역 - 금나라 조상의 발상지」 『연변문학』 2010년 12월호 참조.

14) 金誠一, 『鶴峰逸稿』 권3, 「北征日錄」.

흉악하며, 오랑캐 땅에서는 비린내가 넘쳐흐르며, 오랑캐의 운세가 100년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들을 죽여 없애고 싶다는 적개심이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조선전기에 이미 조선인들은 회령에 있는 운두산성을 오국산성이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바로 이 산성에서 宋의 두 부자 황제가 생을 마감하여 이 땅에 묻혔다고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운두산성을 오국성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였다. 1453년에 일어난 계유정난(癸酉靖難)에 반발하여 함경도에서 반기를 든 이징옥(李澄玉)이 바로 이 회령의 오국성에 대금국(大金國)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는 것¹⁵⁾으로 보아서 김성일이 이 시를 썼던 시기보다 백년도 더 앞선 시기에 조선인들은 조선 함경북도 회령의 운두산성을 금나라시기의 오국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조 중기 李重煥의 『擇里志』 중의 유관 기록

조선 중기 실학자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의 『擇里志』(1751)는 작자가 두 발로 한반도를 걸어 다니며 기록한 체험의 지리서라고 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 北宋 徽宗·欽宗의 무덤은 조선 함경북도 회령에 있다고 한다.

肅宗 정유년(1717)에 (淸나라)의 康熙皇帝가 穆克登에게 백두산에 올라 두 나라 경계를 살펴 정하라고 했다. 그가 두만강을 따라 회령 雲頭山城까지 왔다가 성 바깥 큰 언덕에 여러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황제의 陵이라고 했다. 목극등이 사람을 시켜 파헤치다가 무덤 곁에

15)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충신을 포섭하고 정적들을 살육한 후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세조가 되었다. 이때에 김종서를 비롯하여 사육신이 참살 당하고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등 왕족들도 제거했다. 수양대군은 정예한 군마를 거느리고 있는 김종서의 수하 이징옥(당시 그는 함길도 절제사였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종 원년 10월에 박호문을 은밀히 보내어 함길도절제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고 이징옥을 불러올리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이징옥은 박호문을 죽이고 자기 휘하의 군마를 움직여 반기를 들고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을 모아 대금국황제라고 자칭하고 국도를 오국성에 정한다고 선언하니 많은 여진인들이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서 작은 비석을 발견했는데, 그 비석에 ‘宋帝之墓’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목극등은 사람들을 시켜 흙을 높이 쌓아 올리고 갔다. 그제서야 비로소 금나라 사람들이 말하던 五國城이 바로 운두산성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宋帝라고만 쓰여 있어서 이 무덤이 徽宗의 것인지 欽宗의 것인지 알 수 없다. 운두산성은 동해와 겨우 200백리 떨어졌고, 고려와는 바닷길로 아주 가깝다. 또 高麗의 全羅道와 (중국의) 杭州는 작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바람만 잘 만나면 (뱃길로) 이레 만에 오갈 수 있다. 만약 송나라 高宗이 남몰래 고려를 후하게 대접하고 고려로 하여금 동해에 배를 띄우고 군사 1000명으로 雲頭山城을 습격케 해 徽宗·欽宗과 邢后를 빼앗아 바닷길로 오다가 육지(고려땅)에 올라, 다시 全羅道에서 배편으로 항주에 닿게 했다면 이는 천하에 기이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高宗은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이 없고 西湖에서 노는 즐거움에만 빠졌으니 그 불효한 죄는 하늘에 통했고, 이는 천고에 한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高宗은 죽은 지 100년이 못되어 도둑 중에 무덤이 파헤쳐지는 禍를 만났고, 徽宗은 비록 타향에서 죽어 묻혔지만 지금까지 무덤이 보존되어 있으니 이를 보면 하늘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이 지방 사람들이 언덕 위에서 밭을 갈다가 오랜 된 祭器·술항아리·술·화로 따위를 자주 발견하는데, 이 언덕이 宣化陵(宣和의 誤記인듯 함, 필자 주)인 것 같다. 나머지는 宮人和 侍從의 무덤인듯 하다. 지방 사람들이 말할길 두만강 북쪽 10여리 되는 곳에도 황제의 능이 있다고 하니, 이것이 흙종의 능인듯 하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는 없다.”¹⁶⁾

그러나 이중환은 宋나라의 高宗皇帝를 오해했다. 사실 高宗황제는 靖康之變 그 이듬해인 1128년 즉위하자마자 자기의 아버지 徽宗과 형 欽宗을 구하기 위해 이중환이 생각했던 것처럼 고려로부터 길을 빌리려고 고려에 사신 楊應誠을 파견했지만 고려 국왕이 허락하지 않았음은 『宋史』·『高麗史』·『東史綱目』과 같은 조선 측의 사서들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宋에서 형부상서 楊應誠을 보내어 길을 빌어 숲에 가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宋史에는 楊應忱으로 되었다)송나라 高宗이 즉위하고

16) 이중환 지음, 허경진 옮김, 『택리지』, 서해문집출판사, 40~42쪽.

는 金人이 두 황제(徽宗·欽宗)를 五國城에 옮겨 놓았는데, 본국과 서로 가깝다는 말을 듣고서 본국으로부터 길을 얻어 通問하려고 應誠 등을 보내어 國信使로 삼아 바다를 건너와서 왕에게 조서를 宣示하면서 길을 비는 일을 諭告하였다. 應誠 등이 관사에 이르러 國書를 보내어 길을 빌려 주기를 청하고 두 황제를 맞이하기를 청함이 매우 간절하였다.¹⁷⁾

그러나 고려 국왕은 “길을 빌려 달라”는 송나라의 요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황제(南宋의 高宗을 가리킴)께서 보위에 처음 올라서 맨 먼저 侍臣을 보내어 小國으로 하여금 나무를 건너 발송시켜 앞에 가서 두 황제를 맞이하기를 청했으며, 사신들이 公牒을 잇달아 부송하여 간절한 뜻이 갖추어 지극하니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진이 시초에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臣屬하였고, 혹은 우리 사신들을 따라 들어가 조공하기도 했는데, 근일에 大遼를 함몰시키고, 上國을 침범하고는 이로부터 군대의 위세가 더욱 커져서 강제로 小國으로 하여금 臣을 일컫게 하니, 소국이 마지못해 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항상 우리가 상국을 따르는 것을 미워하여 근일에도 침범하려고 하니 만약 사절이 갈을 빌어서 국경에 들어온 것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시기하고 의심하여 사건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聘問에 대한 답례로 명분을 삼아 길을 빌어서 入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장차 무슨 말로 거절하겠습니까? 진실로 바닷길이 편리한 것을 안다면 小國의 보전도 어려울 것인데, 淮水와 浙江이 바닷가에 있으니 그들의 엿보는 것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¹⁸⁾

이상의 徽宗·欽宗 두 황제가 감금되어있는 五國城이 “본국(고려를 말함)과 서로 가깝다는 말을 듣고서 본국으로부터 길을 얻어 通問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五國城은 분명히 고려와 가까운 두만강변의 회령일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에서 적어도 3천리 이상이나 되는 지금의

17) 『東史綱目』 권8하, 무신년 인종 6년 6월.

18) 『東史綱目』 권8하, 무신년 인종 6년 6월.

흑룡강성 依蘭縣에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依蘭이라는 지명은 회령과 마주한 지금의 중국 용정시 삼습향에서도 찾을 수 있다. 依蘭은 사실 여진어 이란하라(ilanhala)를 한어로 음역한 것인데, 그 뜻은 부동한 姓氏를 갖고 있는 세 부락이 살고 있는 고장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漢語로 의역하면 “三姓”이 되고 音譯+意譯을 하면 “삼습”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란하라(ilanhala)라는 이 지명은 흑룡강 의란현에도 있었을 수 있고 두만강 중류의 유역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연결시의 “依蘭鄉”이라는 이 만주어에서 유래된 지명은 확실히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청나라 황실 조상의 기원전설에서 나오는 만주족의 시조 부쿠리용순이 떼목을 타고 두만강을 내려와서 도착한 지방이 바로 三姓지방에 있는 俄漠惠의 별판의 翰朵里城이라는 점을 보아서도 “의란하라(ilanhala)”라는 지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비로소 금나라 사람들이 말하던 五國城이 바로 운두산성임을 알게 되었다”는 『擇里志』에서의 이중환의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만강 유역은 금나라 사람들이 遼나라의 말대 황제 天祚帝 耶律延禧(재위, 1101~1125)를 잡아다가 감금시켜 놓았던 고장이었다¹⁹⁾는 점을 통해서도 송나라 徽宗·欽宗 두 황제도 바로 이 두만강 유역에 잡혀왔을 가능성이 아주 많음을 타진할 수 있다. 남쪽은 백두산이 가로막아주고 있고 동쪽은 동해가 가로막아주고 있는 두만강 유역은 미상불 금나라인들의 眼中에는 아마도 가장 안전한 고장이었을 것이다. 豆滿江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동북면의 적잖은 지역은 금나라의 핵심세력인 完顏部 女眞의 발상지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豆滿江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의 동북면은 금나라시기에는 女眞人의 세력범위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금나라가 중원에 군림하게 되면서 豆滿江 유역을 비롯한 한반도의 동북면은 女眞 주력들이 이동하여 버린 금나라의 변방으로 되기는 하였지만 금나

19) 금태종 오걸매(吳乞買)는 천조제를 해빈왕으로 낮추어 봉하고 장백산 동쪽으로 보내어 집을 지어서 살게 하였다고 하니 역시 두만강 유역임을 알 수 있다. 천조제는 장백산 동쪽에서 감금생활을 1년 간 한 후 병들어 죽었으니 향년 54살이었다. 黃彬·黃瑞, 2002, 『走進東北古國』, 遼方出版社, <요나라편>을 참조하라.

라 말기에 포선만노(浦鮮萬奴, ?~1233)가 있는 금나라의 반군(叛軍)들이 두만강 유역 일대로 이동하여 와서 동하국(東夏國, 1217~1233)을 세우고 한 동안 위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3) 조선조 후기 윤행임의 『碩齋稿』의 유관기록

조선조 중기의 문신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의 『碩齋稿』에서도 송의徽宗과 欽宗은 두만강기슭의 회령 운두산성에 묻혀있다고 기록을 남겼다.

오국성은 조선 균주 북쪽으로 25리 되는 두만강 남쪽 화풍산에 있는데 일명 운두성이라고도 하며 옛 성곽 유적이 있다. 균주는 지금의 회령부이다. 산기슭에 두 개의 룡이 있는데 황제총이라고 하며 그 주변에는 많은 무덤들이 널려있다. … 송 흠종 정강 2년 금나라 오랑개가 휘종과 흠종을 붙잡아 대정부에 구금했다가 균주 오국성으로 옮겨왔다. 성은 삼만위 북쪽 천리되는 곳에 있는데, 『요사·영위지』에 나오는 오국이 바로 이것이다.²⁰⁾

이 기록으로부터 운두성(오국성)이 있는 산을 화풍산(花豊山)이라고 했음을 알게 된다. 화풍산(花豊山)은 꽃이 많은 산이라는 뜻이다. 회령은 봄이면 살구꽃이 구름처럼 피어난다. 아마도 그래서 운두성(雲頭城) 화풍산(花豊山)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화풍산, 운두성이라는 산명과 성명을 음미하노라면 부지중 중국의 流配詩詞系列에서 南唐後主 李煜의 詞「虞美人」 함께 중국 역대 流配詩詞 중에서 雙璧을 이루는 휘종의 「北行見杏花」(일명 「燕山亭」)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春花秋月何是了，
往事知多少。

봄꽃, 가을 달 언제 사라졌나
지난 일 얼마나 많던고.

20) 尹行恁, 『碩齋稿』 권9, 『海東外史』. “五國城在朝鮮均州北二十五里豆滿江南花豊山, 一名雲頭城, 有古郭遺址. 均州今爲會寧府, 若因山爲陵者二, 曰皇帝塚, 傍有累累衆墓者……宋欽宗靖康二年, 金虜執徽宗欽宗, 拘之大定府, 徙之均州五國城. 城在三萬衛北千里, 遼史營衛志, 有五國者是也”

小樓昨夜又東風，	작은 누각에 간밤에도 셋바람 불어
故國不堪回首月明中。	고국은 달밤에 차마 돌이켜 볼 수 없었네.
彫欄玉砌應猶在，	옥으로 아로새긴 난간은 지금도 있으련만
只是朱顏改。	아마 단청만 바래졌겠지.
問君能有幾多愁，	누가 나한테 시름이 얼마나 많은가 묻는다만
恰似一江春水向東流。	동으로 흐르는 강물 같다고 대답하리.

- 李煜 「虞美人」全文

南唐後主 李煜의 「虞美人」는 중국에서 수백년래 婦孺皆知의 유명한 詞이다. 골수에 사무친 망국의 한을 읊조린 이사와 함께 역시 북천 길에서 흐드러지게 피어난 살구꽃을 보고 역시 처절할 망국한 한을 읊은 휘종의 詞 「燕山亭」은 중국의 流配詞중에서 雙璧을 이룬다.

裁翦冰綃，	새하얀 비단 마름하여
打疊數重，	사뿐히 몇 겹을 접어서
冷淡臙脂勻注。	가볍게 연지를 칠한 양.
新樣靚妝，	마치도 새로운 유행의 화장이라도 하였는가?
艷溢香融，	한껏 예쁜 자태 향기 감돌고
羞殺蕊珠宮女。	예주궁의 신녀가 무색하구나.
易得凋零，	그렇지만 이 꽃은 시들고야 말겠지
更多少，	게다가 또 몇 번이고
無情風雨。	모진 풍우 겪어야 하겠지
愁苦。	아, 이 괴로움.
閑院落淒涼，	대체 이 쓸쓸한 뜰 안에
幾番春暮。	또 몇 번이나 지는 봄을 보낸단 말인가?
憑寄離恨重重，	겹치고 겹친 이별의 서러움 기별하고 싶지만
這雙燕何曾會人語，	이 한 쌍의 제비가 사람의 말을 어찌 알 수 있으랴?
天遙地遠，	멀고 먼 하늘 저 멀리
萬水千山，	침침한 산과 강을 넘어
知他故宮何處。	예전의 궁궐 그 어디에 있으랴?
怎不思量，	어찌 생각이 나지 않으랴?

除夢裏有時會去， 깨어서도 몇 번이나 가 보았건만
 無据。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네
 和夢也新來不做。²¹⁾ 어이하여 요즘은 꿈에도 보이지 않느냐?

- 趙佶 「燕山亭」²²⁾全文

萬乘之君이 일조에 계하수(階下囚)가 되었으니 그 낙차는 너무나도 큰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서 생긴 상처와 그 아픔은 낮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 생기는 상처와 그 아픔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이다. 휘종은 금나라군대의 압송 하에 북행하는 도중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살구꽃을 보고는 만감이 교차하여 이 詞를 지었다고 전한다. 이는 자기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實錄으로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떨어져 내리는 피를 짖어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詩緣情이라는 말이 참으로 지당함을 南唐의 李後主와 휘종의 이 두 詞를 읊으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閑院落淒涼 / 幾番春暮”이라는 구절로부터 이 사는 북천도중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오국성에 囹圄의 몸으로 수년간 갇혀 있던 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자기가 갇혀 있는 뜰 안의 살구나무들에 꽃이 피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고 나서 지은 것임은 분명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金誠一의 『鶴峰續集』·『鶴峰逸稿』나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宋의 徽宗과 欽宗은 바로 조선 회령 화풍산에 있는 운두성에 갇혀있다가 죽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회령의 명물 중에는 백살구가 들어있으며 지금도 조선에서는 金正日의 생모인 金正淑(1917~1949)의 고향 회령을 칭송할 때에는 이 회령의 “회령의 백살구”를 빼놓지 않는다는 점이다.²³⁾ 필자도 2008년에 회령에 관광차로 갔을 때 회령 오산턱에 있는 김정숙의 생가를 중심으로 하여 회령 시가지 전체가 흐드러지게 핀 백살구꽃 속에 파묻혀 있는 광경을 직접 보았었다.

21) 唐生璋 選編 『全宋詞簡編』, 上海古籍出版社, 1998년, 359쪽.

22) 이 사는 『北行見杏花』라고도 한다.

23) 신정일 『다시 쓰는 택리지』, 휴머니스트 펴냄, 2004년, 162쪽을 참조하라.

4) 조선조 후기 김정호의 『大東地志』의 유관 기록

조선조 후기 고산자 김정호(金正浩, 1804~1866) 역시 한반도를 샅샅이 누비면서 직접 걸어 다니며 측량해 『大東輿地圖』를 만들고, 『大東地志』(1861)도 저술했다고 하는데, 『大東地志』에도 이중환의 『擇里志』(1751)와 거의 비슷한 기록을 남겼다.

운두성은 보을하진에 있다. 숙종 임진년, 우라총관 목극등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정하려고 왔을 때, 토착인들은 성밖에 있는 무덤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황제릉이라고 불렀다. 목극등은 인부들을 시켜 발굴하게 하였는데 무덤 옆에서 작은 비석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비석에는 ‘宋皇之墓’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목극등은 인부들을 시켜 봉축(封築)을 크게 하고는 돌아갔다. 이 때에야 비로소 금나라 사람들의 오국성은 바로 운두성임을 알게 되었다. 다만 여기에 묻힌 송나라의 황제가 휘종인지 아니면 흙종인지 알 수 없다. 『송사』에 따르면 휘종과 흙종의 재관(梓棺)은 모두 송나라에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송나라 황제의 능묘가 나타났으니 송나라에 돌아갔다는 재관은 진회가 성화 연간에 꾸민 간계가 아니었겠는가? 또 『송사』에 따르면 금나라의 오국성은 상경에서 동북쪽으로 천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다. 상경은 바로 회녕부이다. 지금의 녕고탑 지방의 운두성은 확실히 금나라의 오국성이 아니다.²⁴⁾

김정호는 “『송사』에 따르면 휘종과 흙종의 재관(梓棺)은 모두 송나라에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송나라 황제의 능묘가 나타났으니 송나라에 돌아갔다는 재관은 진회가 성화 연간에 꾸민 간계가 아니었겠는가?”하면서 『송사』의 기록을 의심하고 있으나 의심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송사』의 기록에 의하면 휘종은 1135년 4월에 금나라에서 죽었고, 그

24) 『大東地志』 會寧·城池. “雲頭山城在甫乙下鎮。肅宗壬辰，烏喇總管穆克登定界時，土人指城外塚謂皇帝陵。克登令人開掘，塚傍有短碣，上書宋皇之墓四字，克登令大其封築而去。始知金人五國城，即雲頭城爾。但云宋皇，不知是徽是欽？按『宋史』：徽欽梓棺俱還。而今謂宋皇之墓，則其時梓棺出于陳檜成和之奸計歟？又按：金之五國城，在上京東北千里。上京即會寧府，今寧古塔地則雲頭城。的非金之五國山城矣。”(『中朝相隣地區朝鮮地理志資料選編』，吉林文史出版社(1996年版)，341쪽)

의 재궁(梓宮)은 1142년에 남송 임안으로 보내졌고, 송흙중은 1156년에 금나라에서 죽었다고 한다.

『송사』의 기록에 따르면 宋紹興十年(1141년), 宋과 金은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은 淮河를 경계선으로 삼고 宋이 金에 納幣를 하고 신하로 되었던 것이다. 宋高宗은 자기의 부친인 徽宗과 母后 鄭太后 그리고 妻 邢后의 梓宮을 돌려받고 生母 韋賢妃를 남송으로 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宋高宗의 生母 韋賢妃가 五國城에서 南宋으로 귀환되어 갈 때 宋欽宗은 자기는 더는 황제자리를 넘보지 않을 것이나 臨安에 돌아가거들랑 꼭 高宗황제한테 자기가 남송으로 귀환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러나 高宗은 흙중의 귀환이 자기의 皇位를 위협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형인 흙중을 救贖하려고 하지 않았다. 高宗의 生母 韋賢妃는 臨安 돌아간 후 高宗의 이런 눈치를 알아채고는 흙중의 부탁을 입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이리하여 흙중은 오국산성에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1156년 한을 품고 죽었다. 그러므로 조선 회령의 운두산성 밖에 묻혀있다는 宋帝之墓는 宋欽宗의 묘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²⁵⁾

5) 조선조 후기 朴齊家の 한시에서 발견된 유관 기록

조선조 말기의 북학파(北學派)의 주장인 朴齊家(1750~1805)²⁶⁾는 1801년 謝恩使의 일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동남성문(東南城門) 흉서사건(凶書事件)에 사단 윤가기가 주모자로 지목되어 그해 9월에 연좌되어 두만강변의 종성(鐘城)에 귀양살이를 하러 가게 되었다. 박제가는 함경북도 종성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회령에서 북쪽으로 30리 정도 상거한 곳에 있는 무덤을 지나다가 그 무덤 속에 휘종과 송흙중이 묻혀있다는 말을 듣고 세 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시들은 그의 시문집인 『정유집(貞莸閣全集)』²⁷⁾ 「회령 북쪽 30리 상

25) 李興盛 著, 『東北流人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年. 제30쪽을 참조하라.

26) 박제가는 조선조 후기 저명한 실학자로서 자는 차수(次修), 호는 (葦巷道人), 호는 초정(楚亭), 정유(貞莸)로서 조선후기 시문4대가의 한 사람이다.

거한 곳을 지나다가 황제총을 보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휘종이 묻혀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지에 따르면 맞는 말이다. 이에 시 3수를 짓는다(會寧北三十里, 過皇帝塚, 傳是宋徽宗葬處, 按地志良是, 三首)에 수록되어 있다.

시든 풀, 찬 서리 역겹의 티끌을 알고	衰草寒瓊認劫灰,
천자의 다재함이 루가 되었구나	果然天子累多才。
기구한 운명 남가의 땅에 정배 와서	紆干微命南柯謫,
하늬바람처럼 나라가 망함을 애달아 하네	一樣西風去國哀。

거친 산 가을날 새와 짐승 울부짖고	艮岳秋生鳥獸呼,
새로 쌓은 성 높아도 탄식을랑 하지마라	新城高直不須紆。
오랑캐의 하늘 죽은 녀에 대답이 없고	胡天不答林靈素,
말같이 어찌 博古圖를 알리오.	鞅鞞寧知博古圖 ²⁸⁾ 。

만리에 철경이 돌아갔다고 했지만	虛傳萬里鐵縶還,
남국의 임금과 신하들 눈물 쉬이 말랐네	南國君臣淚易幹。
천고의 중원사람 여한이 남아있고	千古唐生遺恨在,
동백꽃은 회령 산자락에 피지를 않네	冬青未樹會寧山。

이 시로부터 우리는 박제가의 연박한 학식을 알 수 있다. 박제가는 북송의 풍류황제 徽宗이 거문고나 뜯고, 水墨畫나 그리고, 이사사(李師師)²⁹⁾ 같은 명妓들과 놀아나면서 신선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천자의 다재함이 누가 되었구나”고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박제가는 다소 의심도 하면서 두만강 기슭의 회령 운두산성 성 밖에 묻혀있다는 송나라의 황제는 “정강지변”에서 금나라의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북

27) 朴齊家 : 《貞蕤閣全集》(上), 驪江出版社, 1986년, 詩集卷五, 第464~465頁.

28) 博古圖는 꽃, 새, 물고기, 벌레, 과일 등을 기물에 그려 넣은 장식화의 일종이다. 휘종은 宣和殿에 소장되어 있는 골동품에 그려진 박고도들을 한데 모아서 『宣和博古圖』라는 畫冊을 펴낸 적 있다.

29) 북송 말년의 재색(才色)이 빼어난 명기. 李師師와 휘종 사이의 로맨스는 당시 향간에 파다하게 퍼져있었는데, 휘종이 금라의 여진철타기에 의해 포로로 잡혀 가고 북송이 망한 뒤 李師師는 행적을 감추었다. 하여 그녀의 행방 역시 천고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송의 휘종과 흠종임을 지적하고 있다.

황제의 무덤이란 소문 의심스럽긴 하지만	傳疑皇帝塚,
송나라 휘종, 흠종 가련하기 그지없네.	惻愴宋徽欽。
무덤을 지켜주지 못함이 한이 되오나	恨不置守衛,
천고의 마음 즐겁게 위로하려네	樂慰千古心。

함경북도 회령 운두산성 밖에서 宋帝墓를 참배하고 남긴 조선조시대의 시인묵객들의 한시들을 더 열거할 수 있으나 편폭상의 제한으로 약한다.

6) 한국 당대에 편찬된 『會寧郡志』의 유관 기록

회령군민회가 1978년에 편찬한 『회령군지』에 의하면 宋帝陵이 회령에 있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오국산성에서 두만강을 따라 동남으로 내려오면 강변에 사탄(沙灘)이라는 옛 이름의 마을이 있다. 이 부락 언덕받이에는 무수한 고분이 흩어져 있는데 이 무연묘지(無緣墓地)를 여진총(女眞塚)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오국산성을 향하여 북쪽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성밖에 유난히 큰 무덤이 있는바 지방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것을 송제릉(宋帝陵)이라 전해왔다 …… 이곳 사람들이 언덕 위에서 밭갈이를 하다가 가끔 옛 주기(酒器: 尊)·술·화로 등 속을 얻는 것으로 보아 선화(宣和)의 능 같으며 궁인(宮人)과 따라온 신하의 무덤인듯 하다. 원주민의 말에 따르면 두만강 북쪽 10여리 되는 곳에 또 하나의 황제능이 있는바 이것이 欽宗의 능 같다고 하나 확실치 않다.”³⁰⁾

읍에서 북으로 약 10km 떨어진 화풍산 기슭에는 조산처럼 유난히 큰 분묘와 그 옆에 여러 기의 군묘(群墓)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명나라 영종(英宗) 때 고을 좌수가 주효를 갖추어 송제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그 사실을 조정에 알렸는바 이것이 과연 송제와 그 侍臣들이 군충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증이 없다.³¹⁾

30) 회령군민회 편찬, 『회령군지』, 1993년, 226~227쪽.

이런 지방지의 기록은 흔히 그 고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또한 친히 목격했거나 기록했기에 적어도 宋帝陵에 관한 전설들이 현대까지 전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으며 선행시기의 한국 측 문헌기록들이 허투루 지어낸 浪說은 아님을 증명해 준다.

5. 徽宗·欽宗의 무덤에 관한 중국 문헌자료들에서의 기록

『송사』의 기록에 의하면 휘종은 오국성에 9년 동안 갇혀 있다가 1135년 4월 갑자일에 육체 및 정신적인 시달림을 견디지 못하고 오국성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해 그의 나이는 54세였다. 금나라의 희종은 휘종의 유골을 하남 광녕(廣寧, 지금의 하남성 낙양시 부근)에 묻었다고 한다. 1142년 8월 을유일, 송나라와 금나라의 “소흥화의(紹興和議)”에 좇아 송고종의 생모 위현비(韋賢妃) 그리고 휘종의 관곽(棺槨)은 임안(臨安, 지금의 절강성 항주시)에 돌아왔고, 송고종은 휘종의 관곽(棺槨)을 영우릉(永佑陵, 지금의 절강성 소흥현 동남쪽 35리에 있음)에 안장하고, 묘호(廟號)를 휘종(徽宗)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송원 시기의 문학가 주밀(周密, 1298~1322)의 필기 『계신잡식(癸辛雜識)』에는 『송사』의 기록과는 판이한 기록을 남겼다.

휘종·흠종은 처음에는 오국성에 매장되었는데, 후에 여러 번 기청사를 보내어 재궁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6,7년 후에 재궁이 돌아왔다고 한다. 고종은 몸소 임평에 가서 맞이하였다. 그때 고종은 상복(細服)을 입고 용덕별궁에 묵었는데, 한동안 조야에서는 이를 대사로 간주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그 공에 따라 상을 받은 이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데, 국고의 돈이 많아 모자랐다. 먼저 선인 양위대와 서집정 이광이 재궁을 검사하였으나 그 진위를 분별하지 못했다. 좌선의랑 왕지도와 대서 간관 증통은 대신을 시켜서 신촌(神櫛)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 살펴보아야 한다고 상주하였다. 이에 예

관들은 안릉고사를 동원하면서 재궁이 입경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즉 재궁을 곱에다 담아서 곤면회의(袞冕翟衣)를 곱속에 넣고 염을 하지 말자고 제의했다. 그리하여 모두 이 주장을 따랐다. 근자에 양곤(楊鞫)이란 자가 여러 능을 도굴하였는데 휘종과 흠종의 두 능에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또는 썩은 나무 한 조각만 있을 뿐이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木燈檠이었을 수 있다. 당시에 이미 그 진위를 알 수 없었는데, 그 사기술을 거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잠간이나마 사람들의 인심을 무마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두 황제의 유해는 사막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며 애당초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리라. 비참한지!³²⁾

이상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북송의 휘종·흠종의 梓宮이 남송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주밀의 『癸辛雜識』에는 양곤의 능묘도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더 있다.

양곤이 능묘들을 도굴한 일에 대해 사람들은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있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당시 양곤의 도당들이 서로 고발하는 문서를 베낄 수 있어서 대략 그 자초지종을 알고 있다. 고발문서에서 이르기를 “지원 22년 8월에 소흥로 회계현 태녕사의 중들인 종윤·종개가 능목을 찍어서 파괴하였기에 능지기가 상소하였다. 망한 송나라의 능묘에 금은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양충통을 꼬드겼다. 이들은 양시랑과 왕안무가 사찰의 땅을 침점한다는 구실을 대고 문서를 발급하여 하서의 승려와 부령인 장정부를 데리고 녕종·양후·이종·종도 이 네 능묘를 도굴하였는데, 관곽을 잘라서 파괴하여 보물들을 몽땅 꺼냈는데, 부지기수였다. 또한 이종의 머리를 잘라서 수은과 입속에 물었던 옥을 고집어내어서는 그것들을 배에 실어서 영은문으로 돌아갔다. 유성대에서 위임한 관리도 이를 막지 못했고, 유대찰이 말을 해도 이를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종윤·종가와

32) 周密, 『癸辛雜識』後集「徽宗梓宮」. “徽宗、欽宗初葬五國城, 後數遣祈請使, 欲歸梓宮。六、七年而後許以梓宮還行在。高宗親至臨平奉迎, 易總服, 寓于龍德別宮, 一時朝野以爲大事。諸公論功受賞者幾人, 費於官帑者大不貲。先是選人楊煒貽書執政李光, 以眞僞未辨; 左宣義郎王之道亦貽書諫官曾統, 乞奏命大臣取神櫬之下者斲而視之。旣而禮官請用安陵故事, 梓宮入境, 卽承之以槨, 仍納袞冕翟衣於槨中, 不改斂。遂從之。近者楊髡盜諸陵, 於二陵梓宮內略無所有。或云止有朽木一段, 其一則木燈檠一事耳。當時已逆料其眞僞不可知, 不欲逆許, 亦聊以慰一時之人心耳。蓋二帝遺骸飄流沙漠, 初未嘗還也, 悲哉!”

양충통은 도굴에서 뜻을 이루게 되자 또 그해 11월 11일에 다시 맹후·휘종·정후·고종·오후·효종·사후·광종 등을 데리고 와서 능묘를 몽땅 도굴하여 금은보화들을 쓸어 넣고는 해골들은 마구 버렸다. 그후 본 노(路)의 문서들은 사찰의 땅을 둘러싼 분쟁만 언급했고 능묘도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강남에는 능묘도굴이 크게 성행하여 천하에는 도굴을 당하지 않은 능묘가 없게 되었다. 종개와 충통은 장물을 고루 나누지 않은 일로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애오라지 종윤이란 자만 사찰의 주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은보화를 많이 갖고 있었기에 그 고장에서 명명거리면서 살았다.³³⁾

周密의 『癸辛雜識』別集 卷上에는 또 “楊髡發陵”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1월에 또 휘종·흠종·고종·효종·광종 등 5제능(또 휘종·흠종·고종·효종·광종 등 5제능을 도굴하였다고 하면서 주미이 흠종능을 언급했는데, 趙翼의 『陔餘叢考』卷二十, 李慈銘 『越縵堂讀書記』輟耕錄에서 이미 그 오류를 지적했고, 畢沅 『續資治通鑑』卷一百八十四에서는 “또 휘종·고종·효종·광종 등 4제능 및 제 황후의 능을 도굴했다”고 했고, 考異에서는 “어찌 흠종의 영구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가? 金史에서는 鞏·洛이라는 지방에 묻었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소흥에 어찌 흠종의 능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마 형후의 능묘를 흠종의 능묘로 오인한 것이다. 그 전해진 소문이 실제와 다름이 이와 같다”고 지적했음) 그리고 맹·위·오·사 네 황후의 능묘를 도굴했다. 휘종·흠종의 두 능묘에는 모두 아무 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고 휘종의 능묘에는 썩은 나무 한 토막밖에 없

33) 周密, 『癸辛雜識』續集 卷上, 楊髡發陵. “楊髡發陵之事, 人皆知之, 而莫能知其詳. 余偶錄得當時其徒互告狀一紙, 庶可知其首尾. 云: “至元二十二年八月內, 有紹興路會稽縣泰寧寺僧宗允、宗愷, 盜斫陵木, 與守陵人爭訴. 遂稱亡宋陵墓, 有金玉異寶, 說誘楊總統, 詐稱楊侍郎、汪安撫侵占寺地爲名, 出給文書, 將帶河西僧人, 部領人匠丁夫, 前來將寧宗、楊后、理宗、度宗四陵, 盜行發掘, 割破棺槨, 盡取寶貨, 不計其數. 又斷理宗頭, 瀝取水銀、含珠, 用船裝載寶貨, 回至迎恩門. 有省臺所委官攔擋不住, 亦有臺察陳言, 不見施行. 其宗允、宗愷并楊總統等發掘得志, 又於當年十一月十一日前來, 將孟后、徽宗、鄭后、高宗、吳后、孝宗、謝后、光宗等陵盡發掘, 劫取寶貨, 毀棄骸骨. 其下本路文書, 只言爭寺地界, 並不曾說開發墳墓, 因此江南掘墳大起, 而天下無不發之墓矣. 其宗愷與總統分贓不平, 已受杖而死. 有宗允者, 見爲寺主, 多蓄寶貨, 豪霸一方”

었고, 흙종의 능묘에는 木燈檠 하나밖에 없었다.(흙종의 능묘에서 木燈檠 하나가 나왔다는 데 대하여 李慈銘의 『越縵堂讀書記』 輟耕錄에서는 “흙종의 능묘에서 木燈檠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휘종의 능묘에서 썩은 나무 한 토막밖에 나오지 않은 일을 부연했거나 이에 연결시켜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³⁴⁾

이와 비슷한 기록은 도종의(陶宗儀) 『南村輟耕錄』 卷四에도 있지만 약한다. 이상의 문헌기록을 통해 휘종의 유골이 남송으로 반환되었다고 한 『송사(宋史)』의 기록은 이중환이 지적했던 것처럼 주화과 진회(秦檜)가 꾸민 간계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흙종의 시신이 공(鞏)·낙(洛)이라는 곳에 묻혔다는 『금사(金史)』의 기록 역시 별로 신빙성이 없다.

6. 마무리는 말

발해가 멸망한 뒤 渤海민족(원래는 속말말갈에 속했으나 그 선조들은 肅愼이었
고 그 음이 변하여 女眞으로 되었다.)은 압록강 연안에 있는 女眞은 熟女眞이라
고 하고 두만강 연안에 있는 여진은 生女眞이라고 하였다.

고려가 흥기한 뒤 지금의 함흥 이북은 두만강 女眞의 활동공간이었으며
함흥이북의 땅을 두고 고려와 두만강 동여진(금나라의 前身인 完安부 여진) 사
이에 마찰이 많기는 했지만 完顏阿骨打가 금나라를 세운 뒤에도 지금의 두
만강유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함경북도 지방은 금나라의 영역으로 되었으며
로 두만강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 함경북도 회령 雲頭城은 북송의 휘

34) 周密, 『癸辛雜識』 別集 卷上, 楊覿發陵. “至十一月復發掘徽、欽、高、孝、光五帝陵(復發掘徽欽高孝光五帝陵 周密誤記欽宗陵, 趙翼陔餘叢考卷二十, 李慈銘越縵堂讀書記輟耕錄條, 均已辨其誤. 畢沅續資治通鑑卷一百八十四云: “復發徽、高、孝、光四陵及諸后陵.” 考異云: “豈知欽宗之柩終於不返, 金史明言葬於鞏、洛, 則紹興安得有欽陵, 蓋誤以邢后之陵爲欽陵, 其傳聞失實如此.”), 孟、韋、吳、謝四后陵. 徽、欽二陵皆空無一物, 徽陵有朽木一段, 欽陵有木燈檠一枚而已 (欽宗陵有木燈檠一枚 李慈銘越縵堂讀書記輟耕錄條云: “欽宗陵木燈檠事, 殆以徽宗陵朽木事附會連及”

종 · 흠종이 北遷되어 유폐되었다가 생을 마감하고 땅에 묻힌 고장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사료된다. 만일 이것이 확실하다면 휘종 · 흠종이 남긴 流配 詩詞들도 대부분 바로 회령 운두산성에서 지은 것이 분명하다.

다만 문헌적 증거, 민속학적 증거, 문학적 증거 등 多重證據 가운데서도 고고학적인 증거가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아직은 고고학적인 증거만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조선 함경북도 회령에 있다는 “宋帝之墓”에 대한 발굴만 하면 모든 것이 昭然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선 함경북도 회령의 운두산성 밖에 있다는 송제릉(宋帝陵)에 대한 발굴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천고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보는 것은 후일의 숙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千古의 수수께끼가 너무 쉽게 밝혀지는 것은 미상불 싱거운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회령군민회 편찬, 1993 『회령군지』.
- 이중환 지음, 허경진 옮김, 2007, 『택리지』, 서해문집출판사.
- 唐圭璋 選編, 1994, 『全宋詞簡編』, 上海古籍出版社.
- 彭勇 主編, 2006, 『天朝落日－中國二十王朝覆亡全景』, 東方出版社.
- 李興盛 著, 1991, 『東北流人史』, 黑龍江人民出版社.
- 李長路, 賀乃賢, 張巨才, 1995, 『全宋詞選釋』, 北京出版社.
- 周汝昌 等 撰寫, 1995, 『宋詞鑑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 이태형 역주, 2009, 『우리말로 읽는 송사 300수』, 한국학술정보.
- 李興盛 著, 1991, 『東北流人史』, 黑龍江人民出版社.
- 신정일, 2004, 『다시 쓰는 택리지』, 휴머니스트.

■ 中文摘要 ■

北宋徽宗、欽宗葬地小考

金 寬 雄

据《宋史》、《金史》等中国正史的记载，“靖康之变”后，北宋徽宗、钦宗这两位父子皇帝被捕，作为俘虏押解到位于中国东北方的五国城。1135年，徽宗死于五国城，享年54岁。金熙宗将他葬于今河南省洛阳市附近。1142年，宋金根据协议，将宋徽宗遗骸运回临安，由宋高宗葬之于永佑陵。1156年，钦宗在燕京病死，终年57岁，金朝将其葬于今河南省巩县。然而，近千年以来，围绕着五国城的地理位置以及徽宗、钦宗的葬地，众说纷纭，莫衷一是，成为千古疑案。

本论文采用文献考证学的研究方法，主要援用朝鲜朝时期的历史文献以及中国宋金元时期的历史文献，对五国城的地理位置以及徽宗、钦宗的葬地进行了较为详尽的考证，初步提出了“五国城为今朝鲜咸镜北道会宁云头山城”、“徽宗、钦宗的葬地为今朝鲜咸镜北道会宁”的假说。

